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69

Tel +82 2 796 9800

www.cgntv.net

2021 Summer

Vol.32

CGNTV



CGNTV

믿음원정대
고향교회리턴즈



목차

Contents

2021 방송 개편	2
고향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	4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hymnstory	6
나의 드림리스트 오십쇼	8
발간양반	10

Special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	12
'달려라 풍당' 갤러리	15

Mission

선교지의 아침 프랑스 최득신 선교사	16
---------------------	----

News

국내	18
해외	20
편성표	22
에필로그 남서울교회 화중부 목사	24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21.6.24.(통권 제 32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69 CGNTV
 기획 CGNTV 커뮤니케이션팀
 진행/편집 정원이, 추정현, 김란, 임예은
 글 남원숙, 조인애
 사진 추정현, 어대준, 여준원
 디자인 박채희
 인쇄 투엘미디어(070-4106-7422)



복음으로 전하는 —————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

새로운 시청 패턴에 맞춘 방송 편성과
따뜻하고 은혜로운 복음콘텐츠로
위로와 회복을 전합니다.





다시 만나는 고향교회

오랜 시간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고향교회' 시리즈가 <고향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이하 믿음원정대)>로 돌아왔다. 지난해 1월 시즌2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가 종영된 후 1년 3개월 만이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하지 못한 고향교회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조심스럽게 교회의 문을 두드려본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고향교회

모든 걸 바꿔놓은 코로나 시대, 목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준비할 겨를도 없이 맞이한 변화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작은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믿음원정대>는 이런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한다. 방역부터 조경, 요리, 온라인 사역,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 특히 기독 OTT 플랫폼 '풍당'을 활용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 미디어 선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유쾌한 에너지의 새 얼굴들

<믿음원정대>는 개그맨 오지현 가정과 가수 이도진, 개그우먼 김경아가 각각 팀을 이루어 고향교회를 찾는다. 오지현과 아내 박상미, 그리고 희엘, 유엘, 벨엘 세 자매로 이루어진 '허니원정대'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웃음을 선사한다. 오지현은 "아이들에게 고향교회에 대한 정겨운 추억을 쌓아주고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포원정대'로 묶인 김경아, 이도진은 남매 케미를 자랑하며 교회를 찾아간다. 성도들은 고향교회의 새 얼굴들과 함께 위로를 받고, 오랜 시간 교제하지 못한 아쉬움을 털어낸다.

고향교회에 새 힘을

2014년 시작된 <고향교회> 시리즈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디든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역을 지켜낸 교회의 이야기를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전했다. <믿음원정대>는 그 정체성을 이어받아, 고향교회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한국교회가 항상 기억해야 할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원정대>는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방송 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믿음원정대>는 CGNTV 웹사이트, 유튜브 'CGNTV'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대에게 띄우는 스위트 & 홀리한 세 번째 초대장

‘레트로’의 열기는 여전히 식을 생각이 없는 듯하다. 70~80년대의 패션부터 ‘○○우유’, ‘□□콜라’ 등 특정 상표명이 새겨진 유리컵, 옛날 분식집 그릇의 패턴까지 ‘레트로’ 열풍은 해가 바뀐 지금도 여전하다. 이 기세를 몰아 대표적인 기독교 음악방송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Hymnstory(이하 스위트사운즈 시즌3)>는 어떤 모습일까?



통기타, 악보집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던 그 시절

교회 한켠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 통기타 반주에 맞춰 찬양을 부르던 그 때 그 시절을 추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특별한 것 없는 평일에도, 청년들이 두서넛 모인 곳에서는 찬양소리가 끊이지 않던 시절이 지나고, 화려한 조명과 다양한 세션의 합주 속에 다함께 뛰며 찬양하던 시기도 저물어버리고 말았다. 바야흐로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답답한 마스크 속에서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낮게 찬양을 읊조리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다. 그러나 바이러스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가슴 속에 찬양의 열기를 품고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가 시즌3로 돌아왔다

자세히 들어야 은혜롭다. 찬양, 너도 그렇다.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인데?’ 그동안 무심코 듣고 따라 불렀던 찬양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없을까? 흔한 들꽃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노래했던 나태주 시인처럼 찬양의 가사, 시대의 배경, 원작자 등 자세히 알고 나면 같은 찬양도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하지만 찬양에 보통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정보들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스윗사운즈 시즌3>에서는 가수 김영우, 그룹 제이레빗의 정다운, 두 MC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을 만나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들려준다. 지난 4월부터 방송된 <스윗사운즈 시즌3>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윤행기 목사, 기타리스트 함춘호 교수 편을 본 시청자들은 “청소년 시절로 순간 이동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여행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찬양의 역사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재밌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저 오래된 노래인줄로만 알았는데 정말 은혜로 들으니 은혜가 되네요. 다음 편도 기다려집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Hymnstory: 복음성가의 시작부터 코로나 시대까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성가가 불려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 그 시작은 6.25전쟁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번역된 찬송가만 있을 뿐 복음성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전쟁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크리스천 미군을 통해 찬양집이 소개되면서 미국 복음성가에 가사를 붙여 노래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복음성가의 시작이었다. 그 중에는 지금도 널리 불리는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와 같은 곡들이 있다.

그 후 70년대에는 윤복희, 윤희주 등 당시 활발히 활동했던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복음성가 앨범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성가의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듣고, 부르는 찬양은 어떻게 우리 곁에 찾아오게 된 걸까?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청년세대에게는 새로움을 전해줄 <스윗사운즈 시즌3>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시길 바란다.

방송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Hymnstory>는 CGNTV 웹사이트, 유튜브 'CGNTV'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CGNTV



나의 드림리스트
오십쇼

유튜브 'CGNTV'
채널 최초
오리지널 콘텐츠

도전하는 중년들의 인생 드림리스트

‘백세인생’이라고들 말한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며 의연한 척해보지만 직장에서는 어느덧 은퇴할 시기가 되었고, 품 안의 자식들은 취업, 결혼 등으로 동지를 떠난다. 떠남과 떠나보냄 후에 오롯이 남겨진 인생, 중년! 이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멋지게 보낼 방법은 무엇일지 유쾌한 중년 조혜련 집사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본다.



Q. <오십쇼>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CGNTV에서 중년의 버킷리스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 방송에서 관찰 예능, 버라이어티 쇼 같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지만 이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접목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방송도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건 분명해요. 재미와 메시지 둘 다 잡아야 하죠. 그래서 제가 바람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기독교적 메시지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출연료가 많진 않지만 (웃음^^) 하회장님께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출연하게 됐어요.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Q. ‘하회장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제가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끌어가실 분은 하회장님이시니까. 우리는 오더 떨어지면 하는 거죠^^

Q. <오십쇼>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오십쇼는 ‘중년들의 버킷리스트 도전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아이스버킷챌린지’가 유행이었잖아요. 그 도전이 루게릭병 환우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면, <오십쇼>의 버킷리스트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죠.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아들 우주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였는데, 얼마 전 촬영에서 그 버킷리스트를 이뤘어요. 우주가 얼마 전 군 입대를 했거든요. 군대에 가서도 성경을 잘 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말 열심히 촬영했어요. 보는 분들도 콘텐츠를 통해 성경 읽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Q. 인생의 중반부에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신앙을 갖기 전의 삶은 어땠나요?

사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한테는 목표가 있었어요. ‘고정 프로그램 6개는 해야 한다’는 목표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다른 동료보다 잘나가야 된다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제 자신이 스스로 용납이 안 돼서 밤에 잠도 안 올 지경이었죠. 만약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남들보다 잘나가기 위해’서 저를

괴롭히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표는 끝이 없잖아요. 만족도 없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삶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의 후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Q. 중년의 최대 관심사인 노후준비, 하고 계시나요?

노후대책이라는 게 경제적인 준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 사실 그런 준비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제가 노후를 준비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공부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 지금은 역사신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M.Div과정을 공부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의 바람잡이’가 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Q. <오십쇼>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구독자분들이 이 방송을 다 보셨을 때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혜련의 <오십쇼>가 끝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버킷리스트를 이어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유쾌한 중년의 따뜻한 드림리스트!
<오십쇼>의 매력 속으로 어서 “오십쇼~”

정*준: 한명의 목사로서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권*희: 오십쇼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썬*인: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도 우리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성경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오십쇼>는 유튜브 'CGNTV'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업로드





산골에서 펼쳐지는 노숙인 자립자활 프로젝트

서울역의 노숙인들과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이 함께 땀 흘려 일을 한다?! 무료급식소나 쉼터 혹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첩첩산중,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평창의 한 골짜기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과연 노숙인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일 회성에 그치는 사역이 아닐까?’ 이 모든 당연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KNOCK노크’ 신규 콘텐츠 <밭간양반>이 2021년 봄 농사와 함께 출격한다!



#서울역에 가면 그들이 있다!

서울역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존재가 있다. 사계절의 짐을 옥여넣은 큰 배낭과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그리고 바람을 타고 실려 오는 퀴퀴한 체취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술판을 벌이는가 하면, 일명 짬짬이(돈을 구걸하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로 하루 끼니를 해결한다. 사업 실패, 사기 피해, 깨어진 가정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이유로 거리로 나왔지만, 그들은 한 단어로 불리며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들의 이름은 ‘노숙인’이다.



#그들 곁에는 그가 있다!

그러나 여기, 노숙인들을 ‘인생에 실패한 낙오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한 영혼’으로 보는 목회자가 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노숙인 사역을 이어온 산마루교회의 이주연 목사가 바로 그. 20여 년 동안 노숙인 형제들과 함께 먹고, 일하고, 때론 쓰라린 배신도 당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온 ‘노숙인들이 존경하는’ 목사다. 직접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몸으로 익힌 노숙인 사역 노하우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굳게 붙든 이 목사와 구결하고, 술 취하고, 치고받으며 싸움질하는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숙인 형제들이 2021년 봄, 평창으로 향했다!



#평창에는 그와 그들이 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관광지로 급부상한 평창 말고, 평창 중에서도 첩첩산중! 심지어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산자락에 자리한 ‘산마루 예수공동체’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된다. 목회자, 신학생, 노숙인이 한데 모여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열고, 함께 밭을 갈고 농작물을 심으며 해지면 잠자리에 드는 단순한 삶이 펼쳐진다. 그 단순함 속에서 서울역 터줏대감 노숙인 형제들의 어두웠던 낮빛은 빛나기 시작하고, 움츠러든 어깨는 당당히 펴지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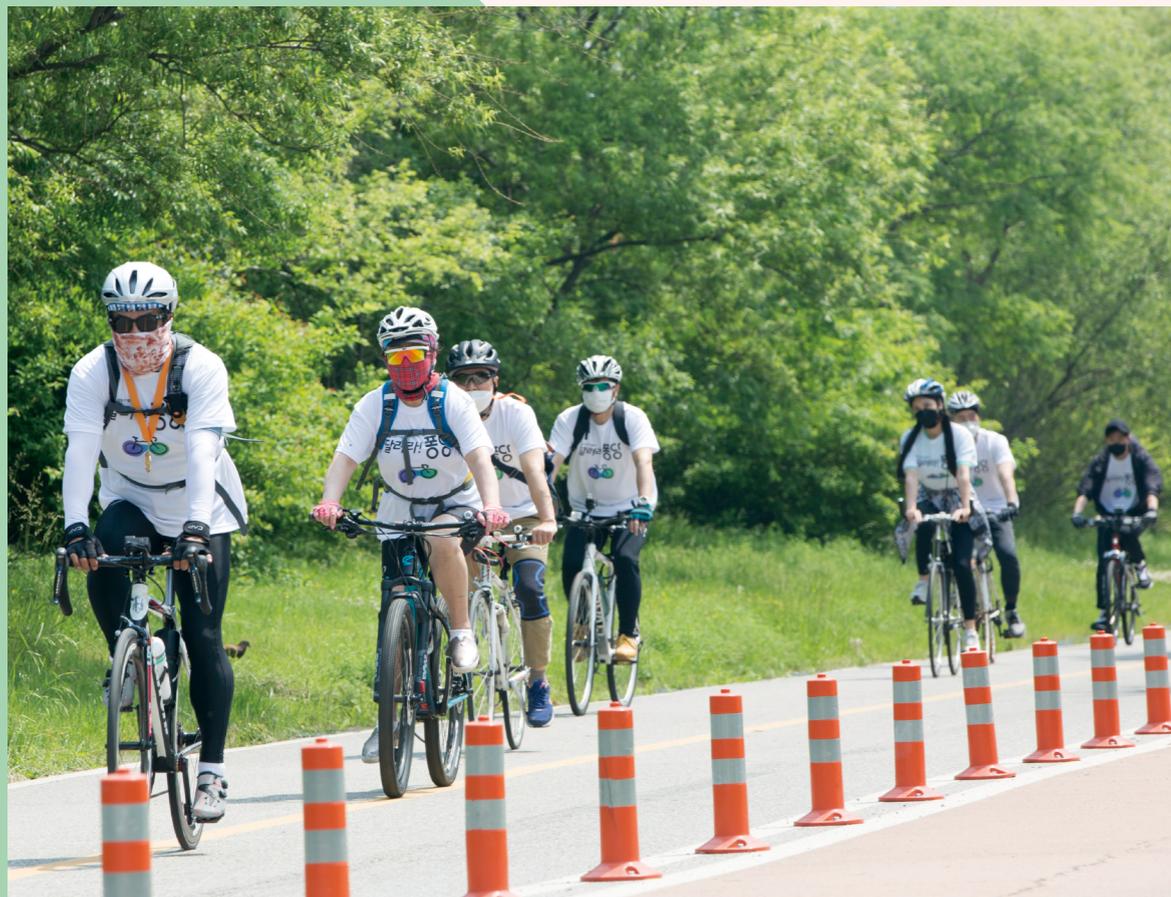
깊은 산중에서 트랙터 모는 목사와 그를 따르는 노숙인 형제들이 함께 써 내려가는 솔직담백한 노숙인 자립자활 프로젝트! 높은 산골에서 펼쳐지는 낮은 자들의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밭간양반>은 유튜브 ‘KNOCK노크’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Special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

다음 세대를 위한 발걸음 ‘달려라! 풍당’이 지난 5월 22일 힘차게 시작됐다. 이촌한강공원에서 양재천까지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진행된 ‘달려라! 풍당’은 이촌한강공원에서 양재천까지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진행된 스페셜 라이딩을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이어졌다. 이번 행사로 모금된 후원금은 국내 최초 기독 OTT ‘풍당’의 어린이 콘텐츠 제작과 허입을 위해 사용된다. 스페셜 라이딩 행사에는 홍보대사인 가수 이무송 집사를 비롯해 400여 명의 성도가 함께 달리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 콘텐츠 제작에 힘을 실었다.



#보통의 선교

‘달려라! 풍당’ 홍보대사인 가수 이무송 집사는 오랜 시간 CGNTV의 후원자로, 그리고 동역자로 활동했다. 지난해 방영된 다큐멘터리 <길 위의 노래>에도 출연해 수해를 입은 교회를 찾아가 찬양으로 위로했다. 이번 행사에는 CGNTV의 사역과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후원자 중 한 명으로 자신의 재능을 나눴다.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인이라서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접한 것도 선물 같은 일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전한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선물이 되어 복음을 전한다. 보통의 선교, CGNTV와 모든 시청자들이 각자의 몫으로 미디어 선교를 하는 모습이 아닐까.

#건강한 콘텐츠가 필요해

흔히 인기가 많은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면 편향되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떠올리기 쉽지만 <붓소헨섭>과 <위라클>은 건강한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교회에 전도의 도전을 심고 있는 <붓소헨섭>의 조셉 붓소와 장애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위라클>의 박위 역시 ‘달려라! 풍당’ 스페셜 라이딩에 참여했다.

이들은 건강한 콘텐츠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콘텐츠를 통해 세상이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했기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 콘텐츠 제작이 얼마나 중요인지 공감할 수 있었다. ‘달려라! 풍당’에 참여한 것은 이런 콘텐츠의 영향력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가 건강한 기독 콘텐츠들을 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참여 소감을 묻는 말에 박위는 이렇게 힘주어 대답했다. 건강한 콘텐츠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욱 신뢰가 된다. ‘달려라! 풍당’과 함께하는 일은 기독 콘텐츠를 확보하는 일을 넘어 다음 세대를,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거룩한 도전이다.



‘달려라! 풍당’ 홍보대사 가수 이무송

<붓소헨섭> 조셉 붓소 & <위라클> 박위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이날 행사에는 눈에 띄는 참가자들이 있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코스를 따라 달린 온누리교회 한들길 성도는 “이번 챌린지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들었다”며 “아무래도 다음 세대인 저희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유독 많았다. 대회 기간 내내 진행됐던 갤러리 이벤트에도 가족이 함께 환하게 웃으며 참여한 사진이 많이 올라왔다. 온 가족이 함께 스페셜 라이딩에 참여한 김형석 성도는 “감사하게도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기독 콘텐츠를 풍당을 통해 많이 접할 수 있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기독 콘텐츠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의 바른 신앙 성장을 위해 함께 달리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숨은 공로자

‘달려라! 풍당’ 스페셜 라이딩 행사에도 충실히 자신의 몫을 다해 중요한 일을 해낸 이들이 있다. 코스 곳곳마다 서서 안내를 하던 ‘풍당맨’들도 그중 하나다. 오랜만에 맞이한 눈부신 날씨 덕에 많은 시민들이 강변에 나와 시간을 즐겼다. 워낙 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자칫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풍당맨’을 자처하고 나와 행사에 참가한 성도들을 친절히 안내하면서 다른 시민들과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왔다. 온누리교회 Pole2 공동체 서혜민 청년은 “아직 풍당이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여기는데, 풍당이 더 큰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힘을 보태고 싶어서 풍당맨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같은 공동체 소속인 최용훈 청년도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풍당’ 키즈 콘텐츠에 기대가 많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토록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시간과 힘, 재능과 노력으로 함께 ‘풍당’을 만들어가고 있다. ‘달려라! 풍당’이 세울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된다.



Special ‘달려라! 풍당’ 갤러리



김영일 후원자
‘달려라! 풍당’ 티셔츠 입고 다니니까 전도도 되네요.



오효수 후원자
중3 아들과 산에 오르며 특별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김승희 후원자
선교라는 게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네요.



최광식 후원자
아들이 즐겨보는 콘텐츠에 후원하게 돼서 기쁩니다.



김진희 후원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의 운동도 돕고 후원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동훈 후원자
아이들 홈스쿨링 체육시간을 ‘달려라! 풍당’으로 하고 있어요.

선교지의 아침

두 얼굴의 도시에서 복음을 외치다

— 프랑스 최득신 선교사

지중해를 접한 아름다운 항구도시 마르세유. 이곳은 '유럽의 문화 수도'라고 불릴 만큼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프랑스의 자부심이지만 동시에 프랑스의 어두운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뒤늦게 식민지 전쟁에 뛰어들어 프랑스가 지중해만 건너면 닿을 수 있는 북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하면서 식민 전쟁의 교두보가 된 곳이기 때문. 지금도 마르세유에는 고국에서 떠나온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찬란함과 처연함을 동시에 품고 있는 도시, 북아프리카로 통하는 유일한 길, 마르세유에서는 2021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 사역 사진 중 일부는 코로나19 이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 사역 사진은 코로나19 이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최득신 선교사는 알제리에서 10년 사역의 종지부를 찍고 지난 2017년 마르세유에 정착했다. 파리에 서 약 900km 가량 떨어진 프랑스 남단의 항구도시에서 그가 만나는 이들은 다름 아닌 북아프리카 출신 사람들. 프랑스와 북유럽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이 알제리, 튀니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곳, 마르세유이기 때문이다.

비린내 나는 부둣가로 향하는 이유

그의 하루는 항구에서 시작된다. 새벽 5시, 그는 성경책을 챙겨 항구로 나선다. 마르세유를 통해 북아프리카로 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특히 알제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강한 무슬림 국가 5곳 중에 한곳으로 손꼽힐 정도로 복음 전파가 어려운 국가다. 그러나 이곳 마르세유를 거쳐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지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전달할 수 있다면,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성경이 보급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로 성경 전달 사역이 잠시 중단된 상태. 하지만 그는 언제든지 새벽녘의 항구로 나설 준비가 돼있다.

무슬림을 만나려면 프랑스로 가라?!

그의 일과는 길거리로 이어진다. 지중해를 건너 프랑스로 오는 난민들을 만나기 위해 매일 길을 나서기 때문. 마르세유에서 만나는 난민들의 99%는 무슬림일뿐더러, 성인 무슬림을 전도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쉽지 않지만 그는 말한다. “여기가 무슬림을 전도하기에 천국”이라고.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된 이슬람 국가들과 달리, 이곳 마르세유에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고, 전도지를 사용할 수 있고, (물론 그들이 받아야 하지만) 성경책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만나는 난민들은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건

그런 그에게도 사역의 보릿고개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항구와 거리를 오가며 열정적으로 사역에 매달리던 어느 날. 영적으로 지치고 육체적으로 힘에 부쳐 “하나님, 제가 사역을 더 못하겠습니다. 성경 전달을 관두든, 난민 사역을 관두든 해야겠어요.”라고 기도하며 주저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다름 아닌 난민 아이들을 통해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 항상 복음을 건성으로 듣는 줄만 알았던 아이들이 무려 다섯 명이나 한날한시에 주님을 영접한 것이다. 믿기지 않아 세 번이나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길 원하니?” 되물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프랑스의 다른 도시나 타 국가로 떠나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프랑스에서 사역한지 올해 6년째를 맞이한 선교사. 그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무슬림을 초대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도의 집이 마련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프랑스 남단의 항구도시, 마르세유에서 띄우는 그의 편지가 세계 방방곡곡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이뤄내기를!

국내 뉴스

지역섬김 프로젝트 실시

CGNTV의 지역 섬김 프로젝트는 올해도 계속됐다. 먼저 CGNTV는 지난 4월 14일 진행된 '제41회 용산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유튜브 생중계를 지원했다. 용산구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최승혜 회장은 "CGNTV 덕분에 '장애인의 날'의 주인공이지만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유튜브로 함께할 수 있었다" 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서빙고동 기차길 건널목 벽화 보수가 진행됐다. 열차 운행 진동으로 인한 균열과 일부 낙서, 색바램 등으로 인해 훼손된 벽화가 새 단장을 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아 벽화 복원에 헌신한 온누리 아트비전은 코로나19로 지친 이웃에게 작은 기쁨을 선물하고 싶어 헌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노루페인트의 협찬과 서빙고동 주민센터 등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독신 여성교사를 위한 은퇴관 건립 모금

지난 4월 4일부터 18일까지 '독신 여성교사 은퇴관 건립을 위한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여, 1억 6170여 만 원의 후원금을 세빛자매회에 전달했다. 오랜 시간 선교에 헌신하고 고국에 돌아온 독신 은퇴 여성교사들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은퇴관 설립을 위해서다. 강원도 문막에 세워진 은퇴관은 선교사의 생활뿐만 아니라 후배 선교사 양성, 지역 교회 섬김 등 은퇴 선교사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나누며 선교 사역을 이어갈 주요 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세빛자매회 주선에 이사장은 "주님을 위해 희생했던 선교사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세빛자매회에서 독신 여성교사를 위한 집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온누리교회와 CGNTV를 통해서 채워주셨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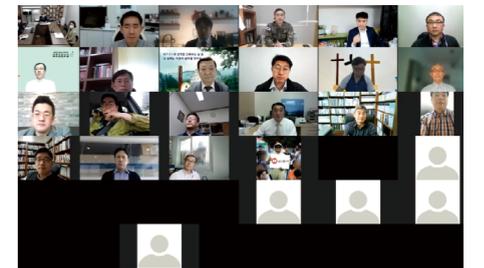
감리교 수련목 영성수련회 기술지원

CGNTV는 지난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8차례에 걸쳐 서울 성동구 꽃재교회에서 진행된 감리교 수련목 영성수련회에서 중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향후 온라인으로 사역해야 할 수련목을 위해 풍당 활용법, 온라인 사역 방법 등 강의를 제공했다. 수련목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영성수련회는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와 예배로 진행됐다. 대전유성교회 김가을 전도사는 "평소에 카메라 사용법을 잘 몰랐는데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앞으로 목회에 적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장성 교육행정부장은 "목회자 선발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2주간의 영성수련회를 CGNTV와 협력한 덕분에 잘 진행할 수 있었다" 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풍당 네트워크 교회 온라인 줌(ZOOM) 미팅 개최

지난 2월 런칭한 기독교 OTT '풍당'은 6월 현재 98개 교회와 네트워크를 맺으며 한국교회와 함께 하고 있다. 실제로 교회에서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나누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과 6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ZOOM 미팅을 개최했다. 60여 개 교회가 참석한 가운데 양육 커리큘럼과 콘텐츠 등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풍당' 콘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양육과 교육을 실시하는 교회들은 대상별 맞춤 콘텐츠에 대해 제안했으며, 실시간 시청과 주일학교 사역 시 스크린으로 함께 풍당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등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온라인 줌미팅에 참석했던 반석군인교회 류정선 목사는 "군인은 휴대폰 사용이 제한적이니 짧은 콘텐츠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CGNTV는 네트워크 교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해외 뉴스



미주 CGNTV

다음 세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챌린지 '달려라! 풍당' 개최

미주 CGNTV가 지난 6월 7일 얼바인온누리교회와 함께 한 인 다음 세대를 위한 챌린지 '달려라! 풍당'을 시작했다. 7월 4일까지 진행되는 챌린지는 운동한 거리 1마일 당 1달러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총 85명이 신청했다. 챌린지가 시작되는 6월 7일에는 얼바인온누리교회 목회자들과 이용경 CGNTV 대표, 미주 CGNTV가 함께 자전거로 얼바인 인근 지역 약 20Km를 달리는 스페셜 라이딩 행사가 진행됐다. 미주 '달려라! 풍당'의 모든 후원금은 미주 지역 한인 다음 세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 CGNTV

무목교회에서 쓰임 받는 드림온플러스

2020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드림온 플러스가 일본 각지에서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 이에 일본 CGNTV는 올해 안으로 3000대의 드림온플러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복음이 필요한 무목교회, 해외 선교사, 디아스포라 일본인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치바현 나라시노시에 위치한 나라시노 독립교회는 15년간 목회자가 없는 교회로 지금까지 CGNTV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올해 초부터 드림온플러스가 설치되어 교회 성도들이 "더 깨끗하고 생생한 화질로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 기뻐한다"고 전했다.



대만 CGNTV

신규 프로그램 <오늘 뭐 얘기하지?> 방송

대만 CGNTV는 지난 6월 2일부터 신규 프로그램 <오늘 뭐 얘기하지? (今天聊什麼?)>를 방송했다. 본 방송은 1세대 기독교인이 많은 대만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전통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다룬 토크 프로그램이다. 대만은 어릴 때부터 전통문화와 세시풍속을 지키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다 보니 크리스천이 된 후 성경적 가치관과 문화적 충돌을 자주 경험한다. 이에 대만 CGNTV는 <오늘 뭐 얘기하지?>라는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줄이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방법을 제시한다. 총 21편으로 제작되며, 중어권 크리스천들이 마주하게 될 전통문화와의 갈등 상황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풀어줄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CGNTV

온라인 통해 성경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인도네시아 CGNTV는 올해 2월 시작된 <Bible Study>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인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양질의 성경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700명의 신학생과 목회자가 등록을 하여 유튜브를 통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1학기가 마무리되는 6월에는 줌(ZOOM) 라이브를 통해 Q&A와 1일 부흥회를 가졌다. 유튜브를 통해 수업에 참여했던 마기 랑이탄 까이나마 학생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지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할 계획이다.



태국 CGNTV

크리스천 E-Learning 프로젝트 <FEED>

코로나19가 지속되고 태국 내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된 상황 속에서 태국 CGNTV에서는 태국 크리스천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한 온라인 양육 프로젝트 <FEED>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 준비 중이다. 유튜브 라이브와 줌(ZOOM)을 통해 방송될 <FEED>는 태국 내 대표 강사들이 시청자들과 함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만나게 된다. 대면 예배, 셀 모임, 성경공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태국 크리스천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편성표

CGN TV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05:00 생명의 삶	05:00 생명의 삶	05:00 생명의 삶	05:00 생명의 삶	05:00 생명의 삶	05:00 생명의 삶	05:00 생명의 삶
05:20 [말씀]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 강해	05:20 [말씀] 지형은 목사 (성락성결교회)	05:20 [말씀] 권성수 목사 (대구동신교회)	05:2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05:2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05:20 [말씀]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05:20 [말씀]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06:3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6:00 생방송 온누리교회	06:00 생방송 온누리교회	06:40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06:00 생방송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6:00 생방송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6: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	07:2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7:2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06:00 생방송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7:20 [말씀] 권성수 목사 (대구동신교회)
08:20 [말씀] 김형준 목사 (동안교회)	07:20 [말씀] 하용조 목사의 느헤미야 강해	07:20 [말씀]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08: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8: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7:20 [말씀] 화중부 목사 (남서울교회)	08: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08: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8: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8:20 [말씀] 한기재 목사 (중앙성결교회)	08:20 [말씀] 정갑신 목사 (예수향남교회)	08: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8:20 [말씀] 하용조 목사의 느헤미야 강해
10: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8:20 [말씀]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08:2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09:00 [말씀]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09:00 [말씀] 최원준 목사 (안양제일교회)	08:2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09:0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11:10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09:0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09:00 [말씀] 권혁빈 목사 (씨드교회)	09:40 [세미나] 미드웨스턴과 함께하는 신확행	09:40 [세미나] 유은정 원장의 마음치료 코칭3	09:00 [말씀] 이용조 목사 (갈보리교회)	09:40 [세미나]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9:40 [세미나] 황사라 목사의 하나님 나라 통독	09:4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시즌2	10:20 [말씀] 임재영 목사 (서부성결교회)	10:20 [말씀] 윤만선 목사 (은혜샘물교회)	09:40 CGN 비전특강	10:20 [말씀]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10:20 [말씀] 황성은 목사 (창동염광교회)	10:20 [말씀] 주승중 목사 (주안장로교회)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세시지	11:0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 Hymnstory	10:2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11:0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11:20 고향교회 리턴즈 <믿음 원정대>	11:00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11:4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11:4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11:0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4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11:4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11:50 CGN 투데이	11:50 CGN 투데이	11:4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11:50 CGN 투데이	11:50 CGN 투데이			11:50 뷰릿지	

13:00 온누리교회 어린이예배	12:1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12:1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12:1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12:1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12:1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12:0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 Hymnstory
13:40 버미제니	12: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2:20 [말씀] 이인호 목사 (더사랑의교회)	12:2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2:20 [말씀] 마크희 목사 (뉴저지온누리교회)	12:20 [말씀] 장덕순 목사 (이리신광교회)	13:00 생명의 삶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3:00 생명의 삶	13:00 생명의 삶	13:00 생명의 삶	13:00 생명의 삶	13:00 생명의 삶	15:00 [말씀] 지형은 목사 (성락성결교회)
15:20 고향교회 리턴즈 <믿음 원정대>	13:20 [말씀] 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교회)	13:20 [말씀] 박신웅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3:20 [말씀] 정현구 목사 (서울영동교회)	13:20 [말씀] 양춘길 목사 (필그림선교회)	13:20 [말씀] 이주연 목사 (산마루교회)	15: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5:50 노크 발간양반	15:00 [말씀] 류용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15:0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15:00 [말씀] 박성일 목사 (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15:00 [말씀] 최경욱 목사 (또감사선교회)	15:00 [말씀] 김용훈 목사 (열린문장로교회)	16:20 [글로벌 말씀] 존 파이퍼
16:1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15: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Hymnstory	15:40 고향교회 리턴즈 <믿음 원정대>	15:4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5:40 목사들의 복수	15:40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16:50 수영로교회 철야예배
17:20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16:20 [글로벌 컨퍼런스] 신명기: 약속된 은혜	16:20 [글로벌 말씀] R.T. 켄달	16:20 [글로벌 말씀] 케빈 드영	16:20 [글로벌 말씀] 카일 아이들먼	16:20 [글로벌 말씀] 칩 잉그램	
	16:50 [말씀] 박성근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	16:50 [말씀] 김정우 목사 (동산교회)	16: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16:50 [말씀] 김형익 목사 (벤살롱교회)	16: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8:00 지구촌교회 주일예배	18:10 [세미나] 유은정 원장의 마음치료 코칭3	18:10 CGN 비전특강	18:10 [세미나] 황사라 목사의 하나님 나라 통독	18:1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시즌2	18:10 [세미나] 미드웨스턴과 함께하는 신확행	18:1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19: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19:3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19: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9:30 고향교회 리턴즈 <믿음 원정대>	19:30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19:3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 Hymnstory	19:10 지구촌교회 주일예배
20:10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20:1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20:1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20: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1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20: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0 CGN 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20: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1:00 상당교회 주일예배	20: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1:0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20: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2:1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21:00 창동염광교회 주일예배	21: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20: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1:00 CGN 비전특강
23:50 CGN 비전특강	21:00 소망교회 주일예배	23:00 [글로벌 말씀] 크레이그 그로벨	21:00 창동염광교회 주일예배	22:1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21: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23:00 [글로벌 말씀] 칩 잉그램
	23:00 [글로벌 말씀] 젠센 프랭클린의 부흥	23:50 저스트 텐미닛 <위러브>	23:50 저스트 텐미닛 <위스킹>	23:00 [글로벌 말씀] R.T. 켄달	22:1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23:5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 복음 앞에
	23:50 저스트 텐미닛 <위러브>			23:50 저스트 텐미닛 <제이머스>	23:00 [글로벌 말씀] 맥스 루케이도	
					23:50 저스트 텐미닛 <아이자야 썬스티원>	

편성정보는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pilogue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임을 알게 하는 '퐁당'

—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앗수르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것 같은 절체절명의 고통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절망 너머에 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소망을 본다. 모든 지역이 다 정복되어 예루살렘 하나만 겨우 남아 있으며, 앗수르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므로 이스라엘이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절망 중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질서를 깨닫고 소망을 품는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시온에 정의와 공의로 총만하게 하심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총만하게 되는 꿈을 꾸다. 이 소망이 막연한 기대나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며 세상과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이며, 세상의 제국이나 권세가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총만한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이사야 33장 6절)라 고백한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멈추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오늘 같은 때 막연한 반성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며,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보배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세상의 많은 일들로 분주하기를 멈추고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경외함

이 우리의 보배라는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일이다.

모임과 대면이 어려운 오늘 OTT 플랫폼인 '퐁당'은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 곧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데려가는 아주 요긴한 도구요 통로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탁월한 성경 강해와 은혜 넘치는 예배부터, 각종 알찬 내용의 강의들과 영화와 문화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와 특히 청년, 다음 세대들의 갈급함을 채우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부족함이 없다. '퐁당'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대면과 모임의 어려운 한계를 극복해 내고 많은 목마른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도구로 복되게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널리 추천하는 바이다.



함께! 미디어 선교 전 세계에 전파되는 순수복음콘텐츠, CGNTV와 미디어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CGNTV 후원방법 안내

후원방식

- 1_ 정기후원신청: 통장자동이체·신용카드 정기후원
- 2_ 일시후원신청: 계좌이체 or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휴대폰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다모음 앱
ARS 후원 060-705-0000 (한 통화 7천원)

정기 후원 QR



후원 계좌

- 1_ 국내: **하나** 573-910002-67804 / **우리** 1005-801-017847 / **국민** 225101-04-006695 / **농협** 301-0072-3639-01
- 2_ 해외: **하나** 573-910007-48104

후원 신청 방법



전화 후원
02-796-2243



온라인 후원 www.cgntv.net
우측상단 후원하기 클릭



모바일 앱(다모음 앱) 후원
다모음 앱 설치 후,
CGNTV 후원하기 선택

다모음앱 QR



CGNTV 실행위원회 배종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김희준,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정운섭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상철, 강상훈, 강신익, 강종도, 고미애, 고현준, 곽승남, 구재영, 국정숙, 권득한, 권영빈, 김관식, 김근철, 김기형, 김동철, 김명세, 김명철A, 김명철B, 김석인, 김선래, 김성근, 김성목, 김성진, 김수영, 김순영, 김순정, 김신원, 김영미, 김영환, 김영희, 김용성, 김원구, 김원규, 김 인, 김민경, 김장렬, 김정민, 김정훈, 김종수, 김준홍, 김창석, 김현중, 김형식, 김호성, 김홍국, 김희준, 나영욱, 남경화,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군명, 박기일, 박대수, 박상송, 박성호, 박영한, 박은정, 박이철, 박장순, 박재두, 박지수A, 박지수B, 박진두,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배병태, 백종신, 서명수, 서성렬, 서정호, 서춘희, 선우석, 성필호, 손제열, 손태용, 손한기, 송동섭, 신수은, 신철우, 신현식,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륜, 안수진, 안해욱,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엄재준, 오도훈, 오 명, 오범규, 우시정, 유병진, 유상재, 유영섭, 유익준, 유이상, 윤석우, 윤석일, 윤영각, 윤원식,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동엽, 이미숙, 이밖음, 이봉걸, 이서정, 이서일, 이석환, 이영태, 이영희, 이용만, 이용성, 이은경, 이일표, 이일형, 이재욱, 이장환, 이철원, 이춘희,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이희경, 이희연, 임동욱, 임상범, 임성택,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정신, 정상기, 정윤희, 정재민, 정진호, 정희석, 조성현, 조영준, 조영진, 조익철, 주영재, 지상목, 지성환, 진삼하, 채수삼,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정수, 최종순, 최훈학, 한상규,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허진성, 홍혜실, 황광석, 황상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언제나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림온안테나 / 플러스

- 드림온안테나(위성TV): 30만원
- 드림온플러스(인터넷TV): 15만원(지역,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후원을 통해 CGNTV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예금주:재단법인은누리선교)

케이블TV

- LG HelloVision - LG헬로비전 ch.288번(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D'LIVE - 딜라이브 ch.304번(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CS 푸른방송 - gcs 푸른방송 ch.159번(프리미엄형 상품)
- 현대 HCN - 현대 HCN ch.550번(프리미엄형 상품)

IPTV

- kt - 올레KT ch.237번(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SK broadband - SK Btv ch.302번(가입문의: 국번없이 106번)
- LGU+ - LG유플러스 ch.271번(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모바일 앱

1.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아이폰: Podcast/안드로이드폰: 팟백)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3. 퐁당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퐁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CGNTV 웹사이트

- CGNTV 웹사이트에서는 고화질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 CGNTV 웹사이트: www.cgntv.net
 - 모바일 웹: m.cgntv.net

CGNTV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

CGNTV 유튜브 &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YouTube 'CGNTV', 'CGNTV SOON', 'KNOCK노크' 검색
- facebook 'CGNTV', 'KNOCK노크' 검색